

현대의 '삶[生]'과 '비즈니스[生意]'세계에 관한 장자의 지혜: <양생주(養生主)>를 중심으로

○들어가며

우선, 장자(庄子: B.C369 – B.C286), 즉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죽은 장자를 살려, 그리고 약 20년 전 장자를 석사학위논문으로 쓰던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장자를 고집어내어, 오늘 이렇게 공개적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상공회의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다룰 장자는 실존적 인물로서 '장자'를 고증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쓴 저작인 <장자> 그 중에서도 <양생주>편을 집중적으로 읽음으로써, 어찌하여 2300년 전의 그의 생각과 목소리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관한 영원한 과제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질문에 찌렁찌렁하게 울리고 있는가? 과연 그의 확신에 찬 삶에 대한 해답과 울림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저의 직업적 생애는 만 30세인, 2010년 5월 정식으로 상해교통대 전임교수로 임용되고, 그 해 12월에 상해의 <新闻晨报Shanghai Morning Post>로부터 신문의 2면 전체를 할애 받아, 어떻게 상해에 오게 됐나, 상해교통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또 어떤 목표와 희망을 갖고 있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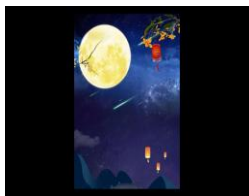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장자의 '자유정신(自由精神)'은 제가 어려울 때나, 곤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제 삶의 성장단계에서 질적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저 하늘 높은 곳의 대붕의 관점에서 인생 전 풍경을 부감하고,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립해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道)'로서의 길과 방법을 제시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외부로부터의 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변화적 변수적 상황으로부터 내 안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中心)'을 잡고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설렘으로

곧 전환할 수 있는 긍정에 찬,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힘[自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도가 사상이라 하는 대표적 두 거장을 통칭하는 ‘노장’이 아닌, 장자와 단독으로 대면하게 된 것은 곧, 2003년의 여름방학 중 특히 무더웠던 어느 날입니다.

전, 빠른 시간으로 석사를 졸업하기 위해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연구실 책장에 꽂혀 있던 ‘장자책’을 펼쳤습니다. “북명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곤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저를 향한 장자의 첫 일성은, 저를 당황함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라고? 북명은 또 뭐고, 물고기는 왜? 장자는 물고기 전문가인가? 이 엉뚱한 질문에 대한 자문과 자답은 저를 점점 외부에서 기인한 어떠한 압력과 잡다한 걱정 꺼리로부터 신경을 끄게 만들고, 오롯이 저한테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잊는다[忘我]’는 것이구나! 나를 잊는다는 것이구나! 2005년에 장자로 석사논문을 쓰고, 2008년 중국 칭화대에 박사과정(*중국정치 전공)에 유학을 하던 중, 전국 도교협회에서 모집한 장자논문(50편)에 입선되어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의 삶에 녹아 있는 장자의 ‘자유정신(自由精神)’으로 돌아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오십을 바라보면서, 공자가 <논어>에 언급한 ‘지천명(知天命)’을 생각합니다. 천명을 안다? 인생의 단계를 15살에 ‘학문에 뜻[志学]’을 두고, 30살에 ‘바로 서고[而立]’, 그렇게 10년을 살면 40살엔 외부의 어떠한 것에도 혹하여 동요하지 않는 불혹(不惑)의 단계로 진입하고, 50에는 비로서 천명(天命), 즉 ‘하늘이 내게 명령한 바’를 알게 된다. 또 그렇게 10년을 살다보면 나이 60에는 외부의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耳順이 되며, 마침내 70살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七十而从心所欲不逾矩, 종심소욕불유구]’의 내적으로 자유롭고,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막힘이 없이 조화로운 경지에 이른다.



이 유가적 방법은 인생을 마치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를, ‘둥근 보름달’로 상징하고, 원의 안이 가득차서 제일 밝은 빛을 발하는 ‘원만(圓滿)’한 것을 점진적 학습과 수양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인생의 한 순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절차탁마’하며 즉, 자기를 반성하며 갈고 닦는 공부를 게을리 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단, 도가의 방법은, ‘노장(老庄)’은 이완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원만’케 하는 방식은 반드시 그 안을 조금씩 더 채워가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씩 더 덜어낼 때 그래서 궁극에 ‘무(无)’의 상태로 가까이갈 때 진정으로 원만의 형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를 하나라도 더 가지려, 채우려, 형식을 갖추려, 그래서 남에게 있어보이려 하는 ‘유(有)’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최후에 남는 나, 그 자체로서의 ‘나(吾)’ 자신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무(无)’의 형태로 아직은 남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보석 같은 빛나는 것이 있다. 장자는 그것을 ‘생(生)’이라고,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장자가 ‘생(生)’을 삶을, 자신의 생명력을 중시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 점점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본론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서 알 수 있듯, 장자는 어느 날 잠에서 꿈을 깹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어찌나 생생한지, 자기의 꿈에서 나비가 나오는 꿈을 꿔는지, 아니면 그 꿈 나비에 장자가 등장하는 꿈을 꿔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자가 나비 꿈을 꿔는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꿔는가? 나비가 장자로, 장자가 나비로 하나의 물이 곧 다른 물로 전환될 수 있는 이것을 일러 ‘물화(物化)’라고 합니다.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경직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장자에서 나비로, 나비에서 장자로 이것에서 저것으로 곧 ‘넘나들 수 있는’ 정신의 삶. 장자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단, 이게 원칙이 없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를 뜻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 장자라는 그 실체 안에서 꿈을 꿔고, 그 꿈 안에 나비가 등장했고, 그 나비의 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물이 저 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물화’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곧 장자의 자유로운 ‘정신’의 반영입니다. 장자와 나비 사이에 ‘구분(則必有分矣)’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이 점은, 바로 불교와 극명히 다른 포인트입니다).

이 장자의 본질적 입장에서부터, 거꾸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유추해볼까요? 현대의 ‘삶(生)’과 ‘비즈니스(生意)’ 세계에 관한 장자의 지혜는 무엇인가? 자연과의 관계에 놓인 사람의 인생인 삶도 과거냐 아니면 현재인가와 관계없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공존을 합니다[變與不變]. 분명 과거 고대와 시공을 초월하여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자를 공부합니다. 그것을 지식→방법→에 나아가 ‘지혜(Wisdom)’라고 표현합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는, 영어인 ‘비즈니스’를 ‘성이(生意)’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생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생의 의미, 삶의 의의, 즉, 내가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의의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곧, 누군가 혹은 어떤 대상과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관계라는 것은 곧 나의 관심사에서 출발한 ‘이익(利益)’관계로 점철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선 결국 인간의 삶은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꾸로,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먼저 친구가 되어라,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라(先做朋友, 后做生意)’고 합니다.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장점과 나와서의 접점 및 스타일 등등 알게 되고, 그 기초 위에 업무 분장을 하며 공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한다.

그런데, 현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공통의 이익을 모색할 상대를 모른 채, 그 분야의 기능적인 대상을 찾고, 그 대가로 월급을 주고, 법률적 형태로 관계를 묶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삶의 의미, 생의 의의에 대해서는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앞의 이익만을 쫓게 되니, 그 관계가 빚어내는 삶의 모습은 곤궁하며, 극한으로 치닫는 무한 경쟁의 속에서 궁극에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로 귀결될 운명에 처합니다. 장자는 지적합니다. 내가 없고, 내 삶이 없다. 그걸 제대로 정립해 줄 자유로운 정신이 없는 것. 한 마디로 하면, 내가 이미 이익에 철저히 속박되어 있으면서, 그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순 없다는 것. 그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정신’에 있다.



앞, 모두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장자는 지금으로부터 2300여년 전 사람입니다. 그의 육신은 이미 오래 전에 ‘사(死)’하였지만, 수 천 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그가 말한 ‘자유정신(自由精神)’, 즉, ‘자유’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 말미암는 것이며, 하나 순수하게 ‘정(精)’을 끝까지 일관되게 하다 보면, ‘신(神)’의 경지에 다를 수 있다. 이는 마치 자연 질서를 주재하는 ‘신’으로서의 ‘천제(天帝)’인 ‘하늘[天]’과 소통한다. 이게 바로 천인합일의 경지. 장자가 나비 꿈을 꿨는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꿨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면서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를 두고 ‘진인(真人)’, ‘진짜 사람’이라고 한다. 단순히 자신의 목숨, 수명으로서 삶을 유지하고, 장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有한할 수밖에 없는 목숨에 정신을 투입하여서 나비의 날갯짓으로 자유롭게 생사를 넘나들며, 과거와 현대를 넘나든다.



이 장자의 자유정신의 진면목은 장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장자(莊子)>라는 책에 펼쳐집니다. 장자는 내편, 외편, 잡편 이렇게 총 33편으로 구성되며, 주로 내편의 7

편이 장자 본인이 직접 쓴 저작으로 여기며, 외.잡편에는 그의 후학들이 장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태 글을 쓴 작품들이 다수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자의 사상과 정신을 이해하려 할 때, 내편을 근간으로 삼고, 외.잡편의 내용을 보충하며, 장자의 그 자유정신의 의미를 더욱더 풍부한, 또 풍성하게 입체적 이해를 도모할 방편으로 삼습니다. 장자의 책 전체로 볼 때, 내편의 <소요유>와 <제물론>을 핵심으로 평가 많이 해왔는데, 전 그 논의의 결정판은 결국 <양생주>로 집약된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 자유정신의 집약과 삶의 태도와 방법에 관한 관건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선, <양생주>를 제대로 읽고, 또 검토합니다.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양생주(養生主)>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생(生)’명력을 삶을 통해서 생의 기간 동안 잘 배·양(養)·하고 길러내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무의 형태로 숨겨졌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빛을 발하면서 내 삶의 ‘주(主)’인이 된다.



좀, 궁금합니다. 양생주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명력을 살리면 된다고 확신에 찬 얘기들을 하려면, 분명하고도 구체적 경험, 또 그것을 가능케 한 충격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할 때만 그가 하는 말이 생생하고 그 한 마디에 ‘힘[力]’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은 아주 우연하게 얘기치 않은 일상 속에서 ‘툭’하고 튀어나옵니다.

장자는, 어느 날 남쪽에서 날아 자신의 이마를 툭하고 부딪힌 이상한 까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밤나무가 많은 조릉의 공원의 주변을 노닐다 그만 그 이상한 까치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궁금해서 그 까치를 잡으려 손안에 있던 활을 잡고서, 조릉의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까치를 겨누고 시위를 당겨서 잡으려 순간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건, 까치의 먹이가 될 지도 모른 채 사마귀 한 마리가 나무그늘에 흠뻑 잠을 자고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 장자는 이 때 비로소 잘 알게 됐습니다. 자연의 관계라는 것은 이처럼 눈 앞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정작 내가 그 누군가 먹잇감이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자연의 원리를 파악한 장자, 하지만 그 뿌듯한 기쁨도 잠시 자연의 일부인 인간 또한 그 자연의 이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그는 손에 잡고 있던 활을 그냥 내동댕 치고 즉시 조릉의 공원을 도망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지금까지 먼발치에서 지켜보았던 조릉의 공원 일명, 밤나무 밭 관리인은 그 재빨리 도망치는 장자가 밤을 훔쳐 도망가는 것으로 착각해 그를 쫓아가 꾸짖는다. 장자는 집으로 돌아가 한동안 충격에 빠져 ‘두문불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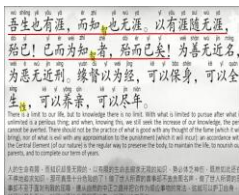


아, ‘깨달음’은 이렇게 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어떤 글자를 형상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치 어느 동굴 안에, 어쩌면 그것이 내 스스로가 만든 외부와의 경계가 지어져 있는 나의 동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어둡던 동굴 안이 점점 밝아 지면서 방금 전까지 외부와 단절된 채로 고립되어 있던 동굴이 이제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뚫린 작은 틈이 열리며 ‘내(吾)’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으셨나요? 이 글자는 ‘悟’로, 깨달을 ‘오!’입니다. 이 깨달을 오라는 글자는, ‘나(吾)+심(心)’이 결합된 것으로, 즉, 내 안에 든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안에 깃든 ‘마음’이며, 또 그 마음은 무의 형태인 정신을 통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후대에 전승됩니다.



자, 이와 같은 장자의 자유정신은 <양생주>편에서 어떻게 전개될까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양생주는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생명체 본연의 생명력을 잘 배양하고 길러내면 결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간파 하고, 내 삶의 규율 속에서 제대로 체현함으로써 실현됩니다. 그래서 양생주를 제대로 음미하고 이해 및 분석할 수 있다면 자연의 질서로서 내 삶의 원리를 시공을 초월하여 통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시야를 확보합니다. 단순히 장자의 저작 33편 가운데 하나를 이해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거꾸로 <양생주>를 통해서 장자의 33편을 관통하며, 그 끝에서 무한히 확장해나가면 바로 과거와 현대를 관통하며 시공을 초월하는 장자의 ‘자유정신(自由精神)’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지혜(Wisdom)’입니다.

그럼, 이익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내 눈 앞에 이익에만 너무 몰두하면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며, 삶의 의미와 생의 의의의 차원에서 바라본 현대의 비즈니스 및 비즈니스의 세계에 던지는 장자의 지혜를 아래의 <양생주> 편에서 탐구합니다.



이 <양생주>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어디까지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가? 또, 왜?> 이렇게 부제를 붙여볼 수 있습니다. 즉, 삶과 지식 삶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AI시대 과학기술은 무한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잘 알아야 하는가?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첫 문장에서, 먼저 ‘내’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은 유한한데, 지식이란 건 끝이 없다. 나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에서 모든 ‘물(物)’에는, 이를 외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곧 과학이고, 과학적 지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유한한 삶 속에서 다 알고 해 무한히 쫓아간다면 내 삶 속에서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삶(吾生)’과 ‘앎[知]’의 관계가 ‘주객전도’가 됩니다.

거꾸로 물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력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앎’은 무엇인가? 그러한 ‘과학적 지식’은 무엇인가? 그걸 탐구해야 합니다. 먼저, ‘내삶’에 대한 것이 즉 ‘내삶’에 필요한 앎이 무엇인지 또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무한히 추구하는 앎은 필연적으로 위태로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죠?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생. 실은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실은 이러한데도, 왜 사람들은 더 알고 할까요? 자신을 제대로 아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탐구해야 하는 데도 말이죠. 이는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데도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명 ‘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척. 내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알맹이 없는 외연의 확장과 화려한 가피는 단 한 순간에 벗기면 곧 벗겨질 수밖에 없는 가면과 같습니다. 누군가 그 가면을 벗기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위태로운 이유입니다. 내 생을 관통하는 삶과 앎의 관계에 관해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지식을 추구하면, 그것은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어 내 몸을 보호, 건강을 유지하고, 부모를 봉양하며, ‘지락(至樂)’의 경지에서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양생주>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포정해우 이야기, 즉 포정이 문혜군(君)을 위해 소를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포정해우를 통해, 기술의 습득과 도의 관계 및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이렇게 부제를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놀라운 점을 지적하자면 어떻게 장자는 문혜군과 포정을 대화의 상대자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대화 주인공은 문혜군이 아니라, 포정이라는 점이다. 어릴 적 어머니들은 아들이 주방에 들어가려하면 극구 말리고 여기는 사내가 들어올 데가 아니라 했고, 그 시간에 가서 책 한 자라도 더 읽으라 말씀 주셨다. 유교적 선비의 확고한 우리 사회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사실 이 점 관련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만, 꼭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23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군주와 주방에서 소를 잡는 포정을 한 컷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장자의 파격적 설정이란 것인가! 장자는 그야말로 인간을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만물은 평등하다는 입장(제물론)에 입각하여 그 어떠한 사회적 신분적 차별과 편견을 철저하게 파격하고, 생명 그 자체로서의 자신의 생명력을 얼마나 잘 발현하는가 이 관점에서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도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해보자. 정작 포정이 군주 앞에서 칼이라고 잘못 쓰면 어떨까?

혹 그 칼이 문혜군의 목을 겨누다면? 즉,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칼 솜씨는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규범의 범주를 훨씬 초월한 경지임을 알려준다. 어떤 관점에서, 인간이 사회적 규칙과 규범으로 정해놓은 것들은 유지할 수도 있다. 정말 포정이 군주 앞에서 보여준 칼 포퍼먼스가 영 아니었다면 아마 그 칼로 문혜군에 의해 군을 옥보인 결과로 죽임을 당할 지도 모를 일이다.

이 이야기의 맥락과 배경에 대해 장자는 굳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린 충분히 그러한 상상을 해보면서, 정녕 이 이야기의 파격 뒤에 숨겨있는 그 심층적 함의를 유추해볼 수도 있다. 그만큼, 장자는 하늘의 관점에서 만물이 동등하다고 보는 것이며, 관건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위적으로 그에게 붙여진 이름으로써의 타이틀이 아니고, 실제로 그 자신을 발현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접한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실제의 힘으로서, 실력, 생명력이 실현해냈나 이것을 본다. 이외에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부차적인 것 가지고 니가 잘났다, 내가 더 낫다 하는 것들은 실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공허한 것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나 자신 정력을 허튼 곳에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시가 아깝고 소중한 생명을, 생명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미 하늘의 경지, 신의 경지에 올라온 포정의 칼 솜씨는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문혜군 앞에서 결코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한 번 원래 하던 대로 자연스레 자신의 기술 가감 없이 발휘한다. 그러니 이런 것을 처음 접한 문혜군은 그 기술에 감복할 수밖에 없다. 마치 그의 칼 솜씨는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손, 어깨, 팔, 다리가 리듬과 절도에 맞는 하나 약속된 칼 군무를 연상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본다. 실은 얼마나 그의 칼 솜씨가 대단했으면, 문혜군이 그를 보기 위해 왔겠는가! 말이다. 문혜군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이게 ‘실력(實力)’이 아니면 무엇인가! 장자는 그래서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라는 것 이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잘 발휘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그 다음의 것들은 자연스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자연의 이치임을 함축한다. 그러니 문혜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야 대단하다, 아름답다, 선하구나, 너의 기술이 어찌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는가?”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포정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다. “신이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道, 그것을 기술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장자는 문혜군과 포정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포정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타이틀을 가진 군을 포정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신하가 된 입장에서 군주를 대하면서, 동시에 자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한다. 단순 실무적 기술만 연마한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라, 그 기술의 끝 위에서 자연의 이치에 도달하고, 그것을 통달한 도의 관점에 섰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부심 갖고 말한다. 문혜군은 그런 포정을 인정한다. 존중한다. 왜? 비록 이 대화의 주인공은 포정이지만, 그 포정을 품을 수 있는 문혜군 또한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록 사회신분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각자의 실력을 발휘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준다.

혹 비즈니스 세계에서 회사이익을 놓고, 또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의 위계질서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실무를 진행하는 프로세스 일환인 측면과 동시에 각각이 각자의 위치에 어떻게 존중 받고, 그 실력에 맞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연결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혜군의 포지션은, 회사 의사결정 최고리더는 단순 기술적 실무적 차원에서가 아니

라 그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도의 관점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함.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포정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칼 잡는 기술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만한 정도의 道의 경지에 올랐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는 삶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실질적 방법이자,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약 문혜군이 그의 얘기를 저지하지를 았았다는 사실. 그것은 문혜군이 얼마나 포정을 긍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분명 포정도 처음에 칼을 잡았을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소를 가르라고는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처음 소를 보았을 때, 집채 같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소가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소 하나만 잡고 씨름을 하기를 3년 정도를 하니, 이제 전체의 소가 보이는 것이 아닌 수준에 다다랐고, 그렇게 19년을 하니까 이제는 눈으로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 소의 생리적 이치에 따라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이 나온다. 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통 잘한다고 하는 경우, 칼을 한 번 쓰고, 약 1년에 한 번 교체 혹은 칼날을 바꿔줘야 하며, 실력이 영 아닌 경우는 거의 달마다 칼을 바꿔줘야만 한다. 칼날은 휘고 꺾어 부러져 도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달리, 지금 포정의 경우는 어떠한가? 19년을 하나의 칼을 썼지만, 여전히 날이 살아 있다. 어떻게? 소의 뼈와 살, 힘줄의 사이사이를 두께가 없는 무로 간격과 틈이 있는 그 틈새들을 자유롭게 넘나들기 때문이다. 칼날이 무너지거나 휘게 될 원천적 원인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포정이 칼을 들 때마다 어려운 곤경을 맞지 않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포정은 심호흡 하며, 모든 집중을 칼 끝에 모으면서 조금 더 천천하게 행동을 하면서 손끝을 움직인다. 그러면 어느 새 소 전체가 자연스레 해체됨.

장자는 처음에는 실제로 칼 쓰는 행동을 통해서 문혜군의 감탄을 자아냈고, 이런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문혜군은 다시 한 번 감탄하며, “아, 대단하다, 선이다!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서, 양생을 얻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호 공존하는 궁극의 이유는, ‘선(善)’에 있다. 그리고 그 선은 바로 도의 경지와 수준에서 함께 상호 존중하며 공존한다. 어떻게? 문혜군이 포정의 말을 듣고, 이것은 일종의 포정으로부터 뭔가를 ‘얻는[得]’ 과정이다. 이익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대를 통해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모종의 빚을 진다는 것을 뜻하며, 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답을 할 방법을 찾고, 포정 자신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즉, 날 때부터 ‘얻어서[得]’ 태어난 이것, 즉 생명력을 실제로 현실화하여,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태로 만듦으로써 그 자체가 포정의 덕이 된다. 그 덕을 문혜군 앞에서 보여주고 그 의미를 말해주는 것 자체가, 得→德→得의 과정으로 化 하면서 전승된다. 이 프로세스 자체가 ‘선(善)’이다. 사회적 질서와 규범 속 ‘유’관계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살리면서, 동시에 상호존중하며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선’을 실현할 방법이기도 하다.



<양생주>편의 세 번째 이야기는, 공문헌과 다리 하나가 없는 우사의 이야기다. <발이 하나뿐인 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법과 천부적 재능의 유무>로, 이렇게 부제를 붙여볼 수 있다. 자, 이쯤 되면, 장자는 사람을 놀래 키는 재주가 있거나, 약간 의도적(?)으로 더 강조하는지 모르지만, 이 대화 장면도 일반적 상황은 아니다. 우선, 정상인과 다리 하나가 없는 우사 간에 주고받는 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우사가, 다리가 하나가 없는 우사가 이 대화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장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통념상 정상인과 장애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적 시선과 그걸 기정사실화 하고 전개되는 얘기가 없다. 왜냐면, 만물의 관점에서 도의 관점 그것은 모두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할 수밖에 없기에. 관건이 되는 것은 그가 다리가 둘인 혹은 하나인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의 생명력을 제대로 발현하고 있는가? 오직 이 핵심적 문제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 하나, 우사의 다리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점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이 요구될 뿐이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위축되면 그 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장자에게 놀라듯, 공문헌은 우사를 보며 놀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발이 하나뿐이기에. 그래서 묻는다. 어떠한 연유로 발이 하나밖에 없게 됐는지. 전쟁에 참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즉, 작위적 결과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것인지 말이다. 우사는 일반적 예상을 깨고, 그런 질문에, 조금도 당혹해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당당히 “하늘이 그랬다,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 태어나면서 곧 그러한 모습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다. 장자는 전제한다. 하늘에서 부여 받은 인간 생명력은, 그 자체로 타고나면서 천부적인 것이란 점. 장자는 이것을 인정한다. 하늘의 작용, 즉, 인간 역량과 영역으로 통제하고 파악할 수 없는 ‘명(命)’을 인정한다. 하늘에서 부여된 모든 생명체는 각각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양생주 실현을 위한 첫째 과제며, 가장 핵심적 문제란 점이다. 사람은 이들의 대화에서도 보듯,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대화를 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특성 가운데 하나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대목은 정상인인 공문헌이 우사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왜? 만약 어떠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실제 시선을 회피하거나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태도가 앞선다. 더욱이 말을 섞으려 하지 않음은 일반적 상황임. 그러나 공문헌은 천천히 끝까지 우사에게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또 그 대답을 경청한다. 사실 우사가 다리가, 발이 하나라는 사실보다도 이러한 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 다음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는, 야생에서 생존하는 물평의 이야기로, <평이 편안히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음에도, 새장을 거부하는 이유와 善>으로 부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천부적인 생명력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답을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물평은 10보를 걷고 한 번 쪼고, 100보를 걷고 나서 한 모금 목을 축여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기에 새장 안에 갇혀 사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재미있는 한자가 ‘樊(번, fán)’이란 글자. 이 字는, 장자가 조롱의 공원에서 놀 때에도 등장했던 것으로, 하나의 큰 ‘울타리’로서 공원, 즉, 뭔가 크게 가두어 놀 수 있는 바구니, 울타리, 새장 등 의미로 통한다. 정녕 자신의 천부적 재능, 즉 생명력을 크게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본래 자연으로부터 품부 받은 것이기에 혹 가능하다면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통해 직접 자연을 접하여 호흡할 수 있는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데서 놀라는 말’과 통한다. 그러한 야생의 환경, 즉 덜 인위적 상황 속에서 우연적, 우발적 기회 속에서 어느 순간 혹 자신도 몰랐던 잠재적 가능성으로 생명력이 곧 ‘툭’하고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울타리, 새장, 바구니와 같은 ‘틀’에 박힌 有의 환경은 분명 삶에 대한 편리와 지금 눈 앞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시킨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 한계도 있다. 장자는 물평을 통해 바로 그러한 점을 역설하며, 물평 또한 그러할텐데 하물며 인간은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 다음 문장이 조금 흥미롭다. ‘신이 비록 왕이나, 선하지 않다(神虽王，不善也)’고 하는데, 실은 장자에서 神은 곧 정신을 뜻하며, 상제와 통할 수 있는 신기에 가까운 신적 작용을 가능케 하는 천제와 통한다. 이 점에서, 신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통용되는데, 이 문장에선 다소 부정적 의미로 연결된다. 이 글을 문맥상 매끄럽게 통할 수 있도록 해석하면, 그런 새장의 환경 속에서 생존과 생활이 비록 왕성할 지라도, 선하지 않다고 번역이 가능하다. 한 가지 첨언하면, 여기서 ‘신(神, shen)’은 중국어에서 발음상 신체의 ‘신(身, shen)’과 통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면, “신체는 비록 왕성하나, 옳하지 않다”가 된다. 전체 문맥의 종지에 부합한다.



자, 앞의 네 번째 이야기까지는 삶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면, 이 다섯 번째 이야기는 친구 죽음에 조문 온 이야기를 통해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노답이 죽은 후 친구의 조문을 통해서 본, 삶의 이면의 모습과 해탈의 방법>으로 부제를 붙일 수 있다. 장자는 단적으로 죽음은 생의 연장선의 끝으로 이해한다. 달리 생과 사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 생의 끝이 죽음이며, 그렇기에 삶 그 자체를 잘 사는 것이 곧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며, 죽음에 대한 태도로서 조문은 그래

서 삶 동안의 그의 생활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노담(*이는 도가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노자이며, 사기엔 그 죽음과 관련한 종적을 알 수 없다고 기재함)이 죽은 다음 그의 친구인 진일이 조문을 온다. 분명 노담은 도가의 창시자며, 그 친구인 진일도 도가계열의 인사라 추측 가능하다. 그렇담 그들 죽음과 조문에 대한 태도는 유교 예법과 다르다. 명은 그 자체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요,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개입은 불필요하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그뿐이다. 그렇기에 노담의 친구인 진일은 단출히 조문을 가서 단 세 번만 곡하고 나왔다. 그러니 그의 제자는 혹시 실례를 하는게 아는지 묻는다. 오히려 진일은 노담을 조문 온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작위적인 것이라고 한탄한다. 즉, 자신의 자식이 죽었을 때보다 더 통곡한다든지, 자신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퍼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품을 싹 걷어내고 민낯으로 대자연 이치에 직면할 때 비로소 ‘命’이 드러나고, 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유한 존재로서 인간의 한계를, 생명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굴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다. ‘命’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의 속박이다.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인간의 정신이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본래 노담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가 왔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그가 죽은 것은 또한 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더 많은 감정과 부가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그런 정력이 있다면, 그를 떠날 보낼 때 정녕 힘들다면 살아 생전에 한 번 더 만나서 교류하면 될 것이고, 그 생명의 안타까움을 살아 생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할 일이다. 그래서 장자는 진일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 그 때에 맞춰 편안하면 슬픔과 기쁨이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상태를 옛날에는 하늘에 걸려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해탈’과 통한다. 즉, 인간의 인위적 감정들로 속박된 굴레로부터 벗어나, ‘命’을 명 그대로 받아 어떠한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개입되거나 동요받지 않을 수 있는 ‘무의 상태’로의 진입을 바로 ‘해탈’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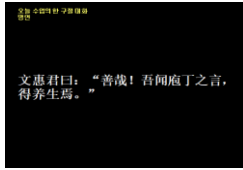


<양생주>편의 여섯 번째 이야기며, 마지막 이야기는, 위의 노담의 죽음에 관한 친구의 조문 이야기에 대한 후속으로 이젠 죽음 이후는 무엇이 남는가? 이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비록 <유한한 육신은 죽지만, 정신은 자유롭게 온전히 후대에 전할 수 있다는 사회 공헌의 방법>,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 있다. 장자는 이렇게 본다. 유한한 육신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무의 형태인 정신은 어떠한가? 육신이 죽고, 유한하다 하여서 정신도 그같이 따라서 죽어야 하는가? 장자가 정신을, 자유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후대에 계승의 형태로 영원히 전승되며 면면히 이어질 수 있다. 그 내용이자, 방법이 바로 ‘자유(自由)’다. 진짜로 영원히 살[生]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게, <양생주>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대미를 장식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 ‘자유’를 향한 ‘정신’이란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인생은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살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생의 끝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명(命)’이다. <양생주>, 즉 자신의 생명력을 잘 길러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 핵심적 방법은 결국엔 ‘자(自)’라는 글자에 있다고 우린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럼 거꾸로 장자의 자유정신은 후대에 전승되며 영원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 그 정신을 ‘포정’의 삶에 투영하여 <양생주> 6편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포정 자신이 칼 쓰는 솜씨와 재능이 있는지, 생명력을 발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를 위해서는 물평의 얘기에서 보듯, 새장의 안에 갇혀서 사는 것만으로는 육신의 안일과 편리함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으로서 생명력을 발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보다 직접 자연과 접촉하며 호흡하며 새롭게 시도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연적, 우발적 기회 속에서 특해 떠오르는 뭔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뭔가인지 더 잘 알고 싶고, 그것을 잘 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지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포정과 같이 칼 쓰는 솜씨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과 만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현장에서 맞닥뜨린 문제는 분명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소가 한 덩어리로서 보일 뿐 정작 칼을 든 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다. 그렇게 소와 연구하며 씨름을 하기를 한 3년을 하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다. 소의 보이지 않는 부분, 무가 보인다. 뼈와 고기의 사이에 있는 근육과 힘줄과의 관계도 눈으로 보여서가 아니라 손 끝 감각, 신기가 작용한 결과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려운 것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단, 조급하거나 급할 일이 없다. 난관에 봉착할수록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씩 조심스럽게 눈의 시선을 그곳에 집중하며 행동을 느리게 칼을 놀리면 어느새 약속이나 한 듯 소는 뼈와 고기로 완벽히 해체가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생명력으로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천재성’을, 또 그 순수하게 어떤 인위적 가미를 하지 않은 채로 ‘精’하게 하나에 온 집중을 다해 행하면, 중국엔 ‘神’의 경지에 이른 ‘정신’을 체득한다. 이럴 때 인생을 한 번 놀러 왔다가 그때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자유로운 ‘지락(至樂)’의 상태로 이른다. 이러한 생명의 끝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삶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어떤 슬픔과 고통이 수반될 필요도 그걸 표시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명(命)’이기 때문이다. 단, 육신은 유한한 생명의 한계로 인하여서 여기서 종을 고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유를 향한 정신은 영원히 환히 세상을 밝혀줄 대자연의 섭리며 이치로서 후대에 면면히 전승된다. 유한한 삶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또한, 포정과 문혜군이 비록 사회적 신분과 타고난 천재성이 다르나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양생주>에 쓰여 있고, 곧 ‘양생주(養生主)’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오늘 수업의 내용을 하나의 핵심적인 한 대화 구절로, 명언을 뽑으라고 하면, 문혜군와 포정의 대화에서, 문혜군이 말한다: “아, 대단하다, 善하다!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양생을 얻었다.” 문혜군이 포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도(道)’를 ‘깨달았다[悟=吾+心]’.



이상으로, 현대의 ‘삶[生]’과 ‘비즈니스[生意]’세계에 관한 장자의 지혜: <양생주(養生主)>를 중심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이국봉 교수)